슬로건

* 레인보우 필름(다양한 사람, 다양한 기능, 다양한 사진)
* 포이어리(포토 + 다이어리) 일상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특별한 추억을 일기처럼 남길 수 있다.

사진부스는 인생네컷 이후로 많은 브랜드가 런칭되고 있다. 요즘은 하루필름이 인기라고 한다. 왜? 하루필름은 특유의 색감과 분위기를 채택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. -> 즉, 사진부스는 진짜 사진이 잘 나와야 의미가 있다. -> 배경 색상, 카메라 각도, 조명, 후보정, 꾸미기 등등 기본에 충실하고 커뮤니티, 다이어리 기능을 접목 시킨다는 느낌으로

메인 키워드 : 즉석사진, 꾸미기, 웹 다이어리, 공유

* 즉석사진이니까 사진이 잘 나와야 함 -> 조명을 조절할 수 있게 하자 -> 디스플레이에서 조절한 RGB 값으로 조명 및 밝기 조절 가능
*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플렛폼이다 ->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사용한다 ->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?
* 스티커사진 + 인생네컷의 컨셉이라면 꾸미기 기능이 다양해야 함 -> 사진 꾸미는 것은 기본이고, 사진의 프레임까지 직접 꾸밀 수 있게 해주자
* 찍은 사진은 공식 홈페이지 개인 계정 다이어리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자 -> 여러 장의 사진을 보관 가능, 하지만 기존 즉석사진은 그 날 찍은 사진만 모아서 출력해줌 -> 콜라주 기능으로 과거에 찍은 사진 등등 내가 맘에 드는 사진으로 편집해서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면? -> 예를 들어 커플 봄여름가을겨울에 찍은 사진을 편집하고 출력
* 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SNS 공유,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 등등
* 내가 직접 만든 사진 프레임을 타인에게 공유 가능하고, 나도 남이 만든 예쁜 프레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가능 -> 인기 순위 정렬, 신규 순위 정렬 등등
* 콜라주 기능으로 다양한 프레임으로 개인 맞춤 프레임 제작 가능 -> 재미요소
* 포즈를 연습하고 가더라도 막상 가면 생각이 안 나는 법! -> 추천 포즈 기능을 넣어보자

<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me.sovs.sovs2&hl=ko&gl=US>

* 사진 부스에 가면 여러가지 소품이 있다. -> 근데 그거 찝찝하지 않나? -> 스노우 카메라처럼 영상 위에 입혀주자 -> 위생상 훨씬 좋고 소품 파손 위험도 없고 개이득

프로젝트로 제작 시 한계점

* 실제 사진 부스 크기로 만들 수는 없다.
* 카메라의 화질 / 원래는 DSLR로 찍어야 하는데 아쉽
* 디스플레이 품질 / 예쁜 사진을 찍는데 구린 화면에서 보여주는게 아쉽

근데 보통 사진 부스들 윈도우 프로그램 아닌가…? 굳이 라즈베리파이 같은 MCU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자